

전시리뷰

《보화각 寶華閣, 1938—간송미술관 재개관전》

2024년 5월 1일-6월 16일

간송미술관, 서울 성북구 102-11

유재빈*

2024년 5월의 첫날, 간송미술관은 《보화각 寶華閣, 1938》 전시를 선보였다. ‘보화각’은 1938년에 지어진 간송미술관 건물의 옛 이름이다. 지난 2022년 보화각은 심각한 노후로 인해 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 전시는 1년 7개월 만의 재개관을 기념하는 전시이다. 이전에도 ‘간송 탄신 00주년’, ‘보화각 설립 00주년 기념전’이라는 이름을 단 전시들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전시의 내용은 간송 전형필(全鎾弼, 1906~1962)의 수집이나 보화각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기념일에 맞추어 국보급 대표 유물을 보여주는 기회였다. 그에 비해 이 전시는 전형필의 수집 행위와 보화각에서의 전시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이전과 크게 구별된다.

이 전시는 간송 전형필의 초기 수장사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돋보인다. 전시는 보화각이 설립된 1938년이란 시점을 중심으로 보화각 건설과 초기 수장사, 이 두 주제를 균형 있게 배치하였다. 1층은 ‘복단장 개설과 보화각 설립’, 2층은 ‘1938년 이전 간송 수집 서화’라는 주제로 구성한 것이다. 1층 전시실은 ‘보화각’이라는 건축 공간에 집중하였다. 건축가 박길룡(朴吉龍, 1898~1943)의 보화각 설계 도면과 전형필의 진열장 스케치가 처음 공개되었다. 이번에 보화각 보수를 위해 수장고의 유물을 전부 옮기면서 발견된 자료이다. 특히 전형필이 그린 진열장 스케치는 그가 전시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그는 도쿄 등정 유린관, 오사카미

*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술관 등을 방문하여 진열장을 스케치하였다. 이를 참고삼아 새로 도면을 그려 삼월 경성지점 가구 장식부에 의뢰하였다. 전시 중인 전형필의 진열장 설계도면은 현재 미술관의 진열장과 일치한다. 이번 재개관전에는 옛 진열장 중 일부를 유리만 교체함으로써 건물뿐 아니라 진열장까지 본래의 전시 상태를 최대한 복원하였다.

2층 전시실은 1938년 이전 전형필이 수집한 서화를 전시하였다. 두 번째 전시실의 핵심 유물은 고서화 매매 사항을 기록한 전형필의 『일기대장』이다. 현재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총 3책만 남아 있다. 『일기대장』을 보면 이 시기 전형필은 경매나 지인을 통해 평균 사나흘에 한 번씩 미술품을 사들였다. 1936년은 전형필이 한남서림을 인수하면서 서적과 서화 수장품의 수가 크게 늘어난 해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도록에서 김영옥 학예사는 전형필의 구매 기록인 『일기대장』과 한남서림을 통한 수장 기록인 『書籍目錄—附書畫古物』의 내용을 정리하고 공개하였다. 간송미술관이 학술자료를 공개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태도가 이전과 특별히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전시에서는 『일기대장』의 목록에서 구입 날짜와 가격이 확인되는 작품들이 함께 소개되었다. 백은배의 〈白琳塘 風俗畫帖〉(1936년 5월 13일, 외 170원), 〈書畫協會 紀念帖〉(1936년 6월 15일, 50원), 김영의 〈富春山 梅花書屋圖〉(1938년 6월 9일, 30원) 등이 그러한 예이다. 물론 이들이 『일기대장』의 소장품을 대표하는 유물은 아니다. 『일기대장』에는 추사파의 작품과 정선을 비롯한 18세기 화가의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에 비해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서화 작품들이다. 아마도 인기 있는 국보급 유물은 다가오는 9월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을 위해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전

시는 전형필이 당대에 생산되는 작품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어 의미가 깊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 중에는 흥미로운 제작 배경을 가진 작품들이 많다. 예를 들어 1888년 미국 워싱턴 사행에서 제작된 대한제국 수행원 강진희(姜璉熙)와 중국측의 팽광예(彭光譽)가 함께 그린 화첩, 〈美槎墨緣華初菁雲襍畫合璧帖〉, 1908년 어전 휘호회(御前揮毫會)에서 일본인 화가, 사쿠마 데즈엔(佐久間鐵園)이 고종(高宗)에게 헌상한 〈李伯看瀑圖〉, 1918년 서화협회 발족을 기념한 〈서화협회기념첩〉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미 유명해진 작품보다 새롭게 연구해볼 만한 작품들이라서 더욱 반갑다. 전형필이 어떻게 이들을 수집하게 되었는지 수장 경로까지 조명이었다면 이번 전시의 취지에 부합하였을 것이다.

간송미술관의 이번 전시는 보화각의 보수 후 재개관을 기념한 전시로서 보화각 설립 무렵 전형필의 초기 수장사를 조명하였다. 한 수장가의 수집과 전시 자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의미 있는 전시였다. 전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느 때보다 학술성과 공공성을 높인 전시였음을 알 수 있다. 전형필은 1962년 서거할 때까지 왕성하게 수집 활동을 이어나갔을 뿐 아니라 문화재 보존과 연구를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형필의 후기 수집과 문화재 후원에 대한 후속 전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